

장애인 고용! 외모적 편견을 뛰어넘자

■ 배진홍 원장의 '장애인의 날' 제언

공공·민간부문 고용률 등 점차 늘어 고무적

차별 아닌 차이 인정하는 성숙한 사회 기대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올해로 장애인의 날이 제정된 지 30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사회 각계 각층에서 노력한 결과 장애인들의 사회적 역할과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은 많은 부분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특히,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장애를 보는 시각이 예전보다 많이 관대해진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장애인이 복지와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하고 유통한 사회인으로 주체적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줌에 있어 우리 사회의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함에 있어 가장 먼저 신행되어야 할 점은 그들이 장애로 인해 비장애인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해하고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정하는 포용적인 자세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핫 이슈로 부각되었던 말이 있다. 바로 '루저'(loser, 실패자)란 용어이다. 이는 신장이 180cm에 이르지 못한 남자는 성공한 사람으로 봄주기 어렵다는 우리 사회의 외모지상주의가 반영된 직설적

인 표현이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키로 대변되는 외모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얘기이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수 많은 성형 미인들이 명품 핸드백과 명품 웃으로 치장한 채 거리를 자랑스럽게 활보하는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해 있다. 외모지상주의의 만연은 우리 사회를 외모적 편견과 선입관에 물들게 할 수 있다.

학기기 사용에 의하여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핸디캡이 되지만, 외모적 편견에 터 잡은 인식적 차별은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불리(不利)로 작용하게 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모지상주의의 심화는 장애인의 직업적 선택과 능력의 객관적 평가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이래로 2009년 공공부문의 장애인의 고용률이 3%로 상향되었고, 민간부문도 2010년부터 점차적으로 2.7%까지 상향조정되었다는 사실은 장애인고용의 양적 성장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하겠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제공〉

장애인에 대한 기회를 확장하는 한편, 장애인들은 실제로 고용 능력에 비해 신체적·외모적 손상을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등록장애인의 80% 이상은 성인기 중도장애인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이들이 장애를 입기 전 모습은 기억하지 않는다. 외모적 편견에 사로잡힌 사회에서 장애를 가졌다니는 것은 기능적 손상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 가치의 다운-그레이드(down-grade)로 직결된다.

장애로 인한 기능적 손상은 보조공

이나 작업환경 등이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외모적 편견에 터 잡은 인식적 차별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하는데 있어 여전히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제 우리는 외모적·신체적 판단만으로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도와 시해온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가 외모적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산업인력으로 편입할 때 우리 사회의 성장원동력은 한층 견실해지게 되고, 진정한 사회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제공〉



우리 사회는 외모적·신체적 판단만으로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도와 시해온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나가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맞춤훈련 모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제공〉

이나 작업환경 등이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외모적 편견에 터 잡은 인식적 차별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하는데 있어 여전히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제 우리는 외모적·신체적 판단만으로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도와 시해온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가 외모적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산업인력으로 편입할 때 우리 사회의 성장원동력은 한층 견실해지게 되고, 진정한 사회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들이를 나온 듯 여유롭고 한적한 곳에서 자연과 더불어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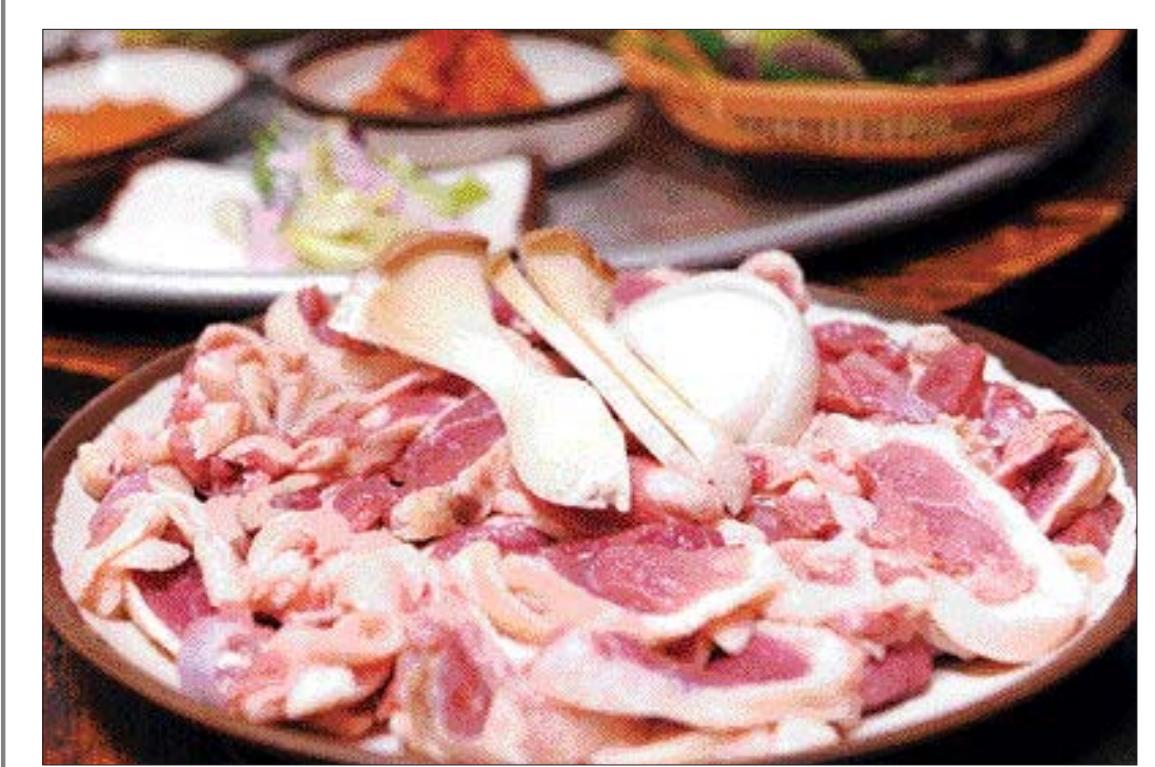
이 집 오리는 맛이 연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쫄깃쫄깃하다. 또 오리 특유의 군내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 고소하기만 한다. 품질 좋은 숯불이 오리의 비린내를 없애주고 구이의 맛을 더욱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이

다.

숯불

기름

맛집



참숯이 생오리와 만날 때

기름기는 쪽쪽 육질은 쫄깃쫄깃...건강·미용에 각광

■ 순천시 덕월동 '미주농원'

고소한 오리 속살과 달콤한 육즙의 환상적인 궁합. 입이 즐거울 일만 남았네.

순천시 덕월동 1252번지 미주농원(업주 김윤수)은 생오리 숯불구이를 잘한다.

나들이를 나온 듯 여유롭고 한적한 곳에서 자연과 더불어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곳.

다른 육류와 달리 많이 먹어도 체내에 지방이 과다 축적되지 않는다. 또 몸의 산성화를 막아주고 스테미너에도 좋다.

이 집은 고마와 마늘을 함께 구워주는데 숯불에 굽기며 다른 곳과는 맛이 사뭇 다르다. 문의 061-744-5292.

다.

숯불 위에서 기름을 꽂 뻗 오리는 달콤하고, 부드럽게 씹힌다. 신선한 야채에 곁들여 먹으면 오리 고기의 더욱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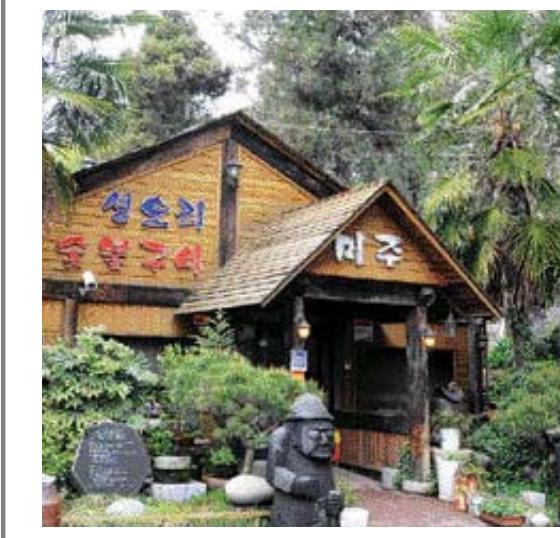
오리는 육류 중 유플로 친다. 근래에 들어 그 맛과 영양은 물론 의학적 효능까지 재평가되면서 현대인들의 건강과 미용에 가장 좋은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다른 육류와 달리 많이 먹어도 체내에 지방이 과다 축적되지 않는다. 또 몸의 산성화를 막아주고 스테미너에도 좋다.

이 집은 고마와 마늘을 함께 구워주는데 숯불에 굽기며 다른 곳과는 맛이 사뭇 다르다. 문의 061-744-5292.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ga@kwan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ju.co.kr

■ 찾아가는 길



〈미주농원 전경〉

■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

광주지하철 장애인 위한 '점자 이용 안내서' 배포

노선도·시간표·각 역사별 출구 정보 등 수록 호평

광주지하철이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맞춤형 안내서'를 점자로 제작한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는 20일 제3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점자 광주지하철 이용 안내서'를 전역사에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한 점자 광주지하철 이

용 안내서는 가로 192mm, 세로 255mm의 크기에 총 18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주 전역에 총 1000부가 배

포되었다.

특히 이번 점자 안내서는 전국 지하철 최초로 노선도 뿐만 아니라 열차 시간표, 이용 관련 전화번호, 각 역사별 출구 정보까지 수록한 점자 안내서로서, 기존 타 지하철이 제작했던 단순 점자 노선도와는 크게 차별화된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지체장애인 고객을 위한 지하철 수호천사 서비스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증진과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소수 고객들의 불편도 놓치지 않는 광주지하철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승희·광주도시철도공사 흥보교 육팀

포된다는 평이다.

특히 이번 점자 안내서는 시각장애인회 회원들에게 우편 배송된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

는 20일 제3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점

자 광주지하철 이용 안내서'를 전역

사에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한 점자 광주지하철 이

용 안내서는 가로 192mm, 세로 255

mm의 크기에 총 18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주 전역에 총 1000부가 배

포된다.

포된다는 평이다.

특히 이번 점자 안내서는 시각장애인회 회원들에게 우편 배송된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

는 20일 제3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점

자 광주지하철 이용 안내서'를 전역

사에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한 점자 광주지하철 이

용 안내서는 가로 192mm, 세로 255

mm의 크기에 총 18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주 전역에 총 1000부가 배

포된다.

포된다는 평이다.

특히 이번 점자 안내서는 시각장애인회 회원들에게 우편 배송된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

는 20일 제3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점

자 광주지하철 이용 안내서'를 전역

사에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한 점자 광주지하철 이

용 안내서는 가로 192mm, 세로 255

mm의 크기에 총 18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주 전역에 총 1000부가 배

포된다.

포된다는 평이다.

특히 이번 점자 안내서는 시각장애인회 회원들에게 우편 배송된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

는 20일 제3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점

자 광주지하철 이용 안내서'를 전역

사에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한 점자 광주지하철 이

용 안내서는 가로 192mm, 세로 255

mm의 크기에 총 18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주 전역에 총 1000부가 배

포된다.

포된다는 평이다.

특히 이번 점자 안내서는 시각장애인회 회원들에게 우편 배송된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

는 20일 제3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점

자 광주지하철 이용 안내서'를 전역

사에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한 점자 광주지하철 이

용 안내서는 가로 192mm, 세로 255

mm의 크기에 총 18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주 전역에 총 1000부가 배

포된다.

포된다는 평이다.

특히 이번 점자 안내서는 시각장애인회 회원들에게 우편 배송된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

는 20일 제3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점

자 광주지하철 이용 안내서'를 전역

사에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한 점자 광주지하철 이

용 안내서는 가로 192mm, 세로 255

mm의 크기에 총 18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주 전역에 총 100